

# 『素問』王氷註 中 『靈樞經』 引用에 관한 考察

송지청<sup>1</sup> · 심현아<sup>1, 2</sup> · 금경수<sup>1, 3</sup> · 엄동명<sup>1, 3</sup> \*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sup>1</sup> · 한의학전문대학원<sup>2</sup> · 한국전통의학연구소<sup>3</sup>

## A Review on quotations of 『Lingshu』 in 『Suwen』 annotated by Wangbing

Song Ji-chung<sup>1</sup> · Sim Hyun-a<sup>1, 2</sup> · Keum Kyung-soo<sup>1, 3</sup> · Eom Dong-myung<sup>1, 3</sup> \*

<sup>1</sup>Dept. of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sup>2</sup>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sup>3</sup>Research Cente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Objective :** Wangbing annotated 『Suwen』 through the method of book-quotation. 『Lingshu』 is the one in quotation. It is objective that 『Lingshu』 quoted by Wangbing and existing 『Lingshu』 are identical.

**Method :** 『Lingshu』 quoted by Wangbing and existing 『Lingshu』 are compared.

**Result :** 5 quotations out of 94 quotations of 『Lingshu』 are not in existing 『Lingshu』, 11 quotations are different and 5 quotations are from 『Suwen』.

**Conclusion :** It is supposed that several types of 『Lingshu』 could be existed when Wangbing wrote annotated 『Suwen』

**Key Words :** 『Lingshu』, quotation, Wangbing, 『Suwen』

## 序論

王氷은 당나라 사람으로 號는 啓玄子이며, 太僕令이라는 벼슬을 지내 王太僕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는 『素問』을 정리하고 본문 전체를 註釋한 이후 『黃帝內經』을 연구하는데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 그러나 王氷이 후대에 끼친 영향에 비해 국내에서는 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 교신저자 : 엄동명.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한의학과 원전학교실  
E-mail: haksan@wku.ac.kr  
Tel: 063-850-6941, Fax: 063-851-6941  
접수일(2011년 4월29일), 수정일(2011년 4월29일), 게재확정일(2011년 5월20일)

기존 연구로 金基郁은 王氷 주석을 통한 운기학설에 대한 연구<sup>1)</sup>와 楊上善과 王氷 註釋의 比較 고찰<sup>2)</sup>, 金南一은 王氷의 生涯와 醫學사상에 대한 연구<sup>3)</sup>, 王氷 사상의 역학적 활용에 대한 연구<sup>4)</sup>가 있다. 金重漢은 王氷의 註釋에 대한 내용분석 및 王氷이

- 1) 金基郁, 朴炫局. 『黃帝內經素問·七篇大論』 王氷 主本을 통한 運氣學說 關한 研究. 東國韓醫大研究所論文集. 4. 1995.
- 2) 金基郁, 朴炫局. 楊上善과 王氷 註釋의 比較論的인 研究 (I).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4(1). 2001.  
金基郁, 朴炫局. 楊上善과 王氷 註釋을 통한 醫學理論의 比較論的인 研究 (II).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4(2). 2001.
- 3) 金南一. 王氷의 생애와 그 醫學사상의 특징. 韓國醫學史學會誌. 15(1). 2002.
- 4) 金南一. 王氷의 陰陽五行理論의 易學의 활용에 대한 연구. 15(1). 2002.

篇第를 改編한 내용을 中心으로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가운데는 王氷이 『素問』을 註解하는데 언급된 서적과 인물에 대한 조사도 포함되어 있다<sup>5)</sup>. 또한 이용범은 「『靈樞』의 書誌學的 考察」<sup>6)</sup>에서 『靈樞』의 異名과 書誌에 관해 밝혔으나 王氷註에서 인용한 『靈樞』나 『鍼經』의 關聯性을 그 내용을 통해 직접 研究하지는 않았다.

기존의 연구를 통해 王氷이 『素問』을 註解하는데 참고로 한 서적으로 『靈樞經』과 『鍼經』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靈樞』는 『九墟』, 『九卷』, 『九靈』과 더불어 『鍼經』으로도 불려서 『鍼經』은 『靈樞』와 같은 서적으로 看做하고 있다. 그런데 王氷은 『素問』을 註解하면서 『靈樞經』, 『鍼經』 등으로 인용하였다.

이에 『素問』 王氷註 中 『鍼經』 引用에 관한 考察<sup>7)</sup>을 통해 王氷이 『素問』을 註解하면서 인용한 『鍼經』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후속 研究로 『靈樞經』 引用文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王氷 引用의 『靈樞經』이 現存하는 『靈樞』와 同一書籍이라는 가정아래 王氷이 인용한 『靈樞經』 文章을 現存 『靈樞』와 비교 고찰해 봄으로써 王氷이 『素問』을 註解하면서 『靈樞經』을 인용한 방식을 살펴보려고 한다.

## 研究方法

1. 『素問』 王氷註 中 『靈樞經』 引用文을 拔萃하였다.
2. 『素問』의 篇順에 따라 整理하였다.
3. 『靈樞經』 引用文과 現存 『靈樞』와 비교하여 校勘, 考察하였다.

5) 金重漢, 洪元植. 王氷에 對한 研究 -王氷의 素問에 對한 註釋 및 篇第의 改編을 中心으로-. 慶熙韓醫大論文集. 4(1). 1981.  
6) 이용범. 『靈樞』의 書誌學的 考察.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2(2). 1999.  
7) 宋志靑 琴垌樹, 沈賢娥, 嚴東明. 『素問』 王氷註 中 『鍼經』 引用에 관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4(2). 2011.

## 本論

王氷의 『素問』註 中 『靈樞經』을 引用한 文章은 다음과 같다.

### 1. 『素問·上古天真論』

(1) 靈樞經曰 人百歲五藏皆虛 神氣皆去

【考察】 『靈樞·天年』의 文章<sup>8)</sup>이다.

(2) 靈樞經曰 邪氣不得其虛 不能獨傷人

【校勘】 『靈樞·百病始生』에는 ‘邪氣’가 ‘風雨寒熱’로 되어 있다.

【考察】 『靈樞·百病始生』의 文章<sup>9)</sup>으로 ‘風雨寒熱’을 ‘邪氣’로 바꾸었다.

(3) 靈樞經曰 足陽明之脈 起於鼻交頰中 下循鼻外 入上齒中 還出俠口 環唇下交承漿 却循頤後下廉 出大迎 循頰車 上耳前 過客主人 循髮際 至額顛 手陽明之脈 上頸貫頰 入下齒終中 還出俠口 故面焦髮墮也

【考察】 『靈樞·經脈』의 文章<sup>10)</sup>이다.

(4) 靈樞經曰 足陽明之脈 起於鼻交頰中 下循鼻外 入上齒中 還出俠口 環唇下交承漿 却循頤後下廉 出大迎 循頰車 上耳前 過客主人 循髮際 至額顛

【考察】 『靈樞·經脈』의 文章<sup>11)</sup>이다.

(5) 靈樞經曰 五藏主藏精 藏精者 不可傷

【校勘】 『靈樞·本神』에는 ‘藏精’이 한 번만 나오며, ‘者’ 뒤에 ‘也’가 있다.

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41.

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86.

1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p.79-80.

1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p.79-80.

【考察】『靈樞·本神』의 文章<sup>12)</sup>으로 ‘藏精’과 ‘也’를 뽑았다.

## 2. 『素問·四氣調神大論』

(1) 靈樞經曰 冬日在骨 蟄蟲周密 君子居室

【校勘】『靈樞』에 없다.

【考察】『素問·脈要精微論』의 文章<sup>13)</sup>과 同一하다.

(2) 靈樞經曰 天有日月 人有眼目

【校勘】『靈樞·邪客』에는 ‘眼目’이 ‘兩目’으로 되어 있다.

【考察】『靈樞·邪客』의 文章<sup>14)</sup>으로 ‘兩目’을 ‘眼目’으로 바꾸었다.

## 3. 『素問·生氣通天論』

(1) 靈樞經曰 血氣者人之神 不可不謹養

【校勘】『靈樞』에 없다.

【考察】『素問·八正神明論』의 文章<sup>15)</sup>과 同一하다.

(2) 靈樞經曰 衛氣者 所以溫分肉而充皮膚 肥腠理而司開闔

【考察】『靈樞·本藏』의 文章<sup>16)</sup>과 同一하다.

(3) 靈樞經曰 盛怒而不止則傷志

【考察】『靈樞·本神』의 文章<sup>17)</sup>과 同一하다.

(4) 靈樞經曰 寒則筋急

【校勘】『靈樞·經筋』에는 ‘筋急’ 앞에 ‘反折’이 있다.

【考察】『靈樞·經筋』의 文章<sup>18)</sup>으로 ‘反折’을 省略하였다.

(5) 靈樞經曰 目開則氣上行於頭 衛氣行於陽二十五度也

【校勘】앞은 『靈樞·衛氣行』의 文章이고 뒤는 『靈樞·營衛生會』의 文章으로, 『靈樞·營衛生會』에는 ‘目開’가 ‘目張’으로 되어 있다.

【考察】『靈樞·衛氣行』의 文章<sup>19)</sup> 중 ‘目張’을 ‘目開’로 바꾸었으며, 『靈樞·營衛生會』의 文章<sup>20)</sup>이 같이 있다.

## 4. 『素問·金匱真言論』

(1) 靈樞經曰 三焦者 上合於手心主 又曰 足三焦者 太陽之別名也

【校勘】『靈樞』에 없다.

【考察】『靈樞』나 『素問』에서 찾을 수 없었다.

(2) 靈樞經曰 心爲牡藏

【考察】『靈樞·順氣一日分爲四時』의 文章<sup>21)</sup>과 同一하다.

(3) 靈樞經曰 肺爲牡藏

【考察】『靈樞·順氣一日分爲四時』의 文章<sup>22)</sup>과 同一하다.

1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68.

1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58.

1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98.

1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01.

1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13.

1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68.

1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04.

1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324.

2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19.

2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01.

2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01.

(4) 靈樞經曰 腎爲牝藏

【考察】『靈樞·順氣一日分爲四時』의 文章<sup>23)</sup>과 同一하다.

(5) 靈樞經曰 肝爲牡藏

【考察】『靈樞·順氣一日分爲四時』의 文章<sup>24)</sup>과 同一하다.

(6) 靈樞經曰 脾爲牝藏

【考察】『靈樞·順氣一日分爲四時』의 文章<sup>25)</sup>과 同一하다.

(7) 靈樞經曰 明目者 可使視色 耳聰者 可使聽音 捷疾辭語者 可使論語 徐而安靜 手巧而心審諦者 可使行鍼艾 理血氣而調諸逆順 察陰陽而兼諸方論 緩節柔筋而心和調者 可使導引行氣 痛疾毒言語輕人者 可使唾癰呪病 爪苦手毒爲事善傷者 可使按積抑痺 由是則各得其能 方乃可行 其名乃彰 故曰非其人勿教 非其真勿授也

【校勘】『靈樞·官能』에는 ‘論語’가 ‘傳論’으로 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語’가 있다. 또 ‘諸方論’의 ‘論’이 없으며, ‘痛疾毒’의 ‘痛’이 없고, ‘由是則’이 없으며, ‘故曰’ 앞에 ‘不得其人 其功不成 其師無名’가 있다. 그리고 ‘故曰非其人勿教 非其真勿授也’는 ‘故曰得其人乃言 非其人勿傳’으로 되어 있다. 물론 『素問·金匱真言論』에 ‘非其人勿教 非其真勿授’의 文章<sup>26)</sup>이 있기 때문에 『靈樞』와 『素問』 두군데서 引用하였다 고도 생각할 수 있으나 『靈樞·官能』에 類似한 文章이 나오므로 『靈樞·官能』의 文章으로 보았다.

【考察】『靈樞·官能』의 文章<sup>27)</sup>과 類似한데, 部分省略과 添加가 있지만 意味上 차이는 없다.

2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01.  
2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01.  
2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01.  
2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1.  
2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306.

5. 『素問·陰陽應象大論』

(1) 靈樞經曰 智者之養生也 必順四時而適寒暑 和喜怒而安居處

【考察】『靈樞·本神』의 文章<sup>28)</sup>과 동일하다.

(2) 靈樞經曰 太陰陽明爲一合 少陰太陽爲一合 厥陰少陽爲一合 手足之脈各三 則爲六合也

【校勘】『靈樞』에 없다.

【考察】『靈樞』나 『素問』에서 찾을 수 없었다.

(3) 靈樞經曰 恐懼而不解 則傷精

【考察】『靈樞·本神』의 文章<sup>29)</sup>과 同一하다.

(4) 靈樞經曰 人年四十 腠理始疏 榮華稍落 髮斑白

【校勘】『靈樞·天年』에는 ‘稍’가 ‘頰’로 되어 있으며, ‘白’ 앞에 ‘頰’이 있다.

【考察】『靈樞·天年』의 文章<sup>30)</sup>과 類似하다.

(5) 靈樞經曰 胃爲水穀之海

【校勘】『靈樞』에 없다.

【考察】『素問·五藏別論』의 文章<sup>31)</sup>과 同一하다.

(6) 靈樞經曰 衛氣者 所以溫分肉而充皮膚 肥腠理而司開闔

【考察】『靈樞·本藏』의 文章<sup>32)</sup>과 同一하다.

2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68.  
2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68.  
3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41.  
3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42.  
3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13.

## 6. 『素問·陰陽離合論』

- (1) 靈樞經曰 足少陰之脈者 腎脈也 起於小指之下 邪趨足心 又曰 足太陽之脈者 膀胱脈也 循京骨至小指外側

【校勘】『靈樞·經脈』에는 ‘足少陰之脈者 腎脈也’이 ‘腎足少陰之脈’으로 되어 있으며, ‘邪趨’는 ‘斜走’로 되어 있다. 또한 ‘足太陽之脈者 膀胱脈也’는 ‘膀胱足太陽之脈’로 되어 있고 ‘循京骨’ 앞에 생략된 文章이 있다.

【考察】『靈樞·經脈』의 文章<sup>33)</sup>과 類似하다.

- (2) 靈樞經曰 命門者 目也

【考察】『靈樞·本藏』의 文章<sup>34)</sup>과 同一하다.

- (3) 靈樞經曰 天爲陽 地爲陰 腰以上爲天 腰以下爲地 分身之旨 則中身之上屬於廣明 廣明之下 屬太陰也 又心廣明藏下則太陰脾藏也

【校勘】『靈樞·經水』에는 ‘分身之旨’ 以下の 文章은 없으며, 『素問·陰陽離合論』에 ‘中身之上屬於廣明 廣明之下 屬太陰也’ 文章과 유사하게 ‘中身而上 名曰廣明 廣明之下 名曰太陰’라는 文章이 있다.

【考察】『靈樞·經水』의 文章<sup>35)</sup>과 『素問·陰陽離合論』의 文章<sup>36)</sup>을 混合하여 引用하였다.

- (4) 靈樞經曰 足太陰之脈者 脾脈也 起於大指之端 循指內側白肉際 過核骨後 上內踝前廉 上臑內 循胫骨之後 足陽明之脈者 胃脈也 下膝三寸而別 以下入中指外間

【校勘】『靈樞·經脈』에는 ‘足太陰之脈者 脾脈也’가 ‘脾足太陰之脈’로 되어 있다. ‘足陽明之脈者 胃脈也’는 ‘胃足陽明之脈’으로 되어 있으며, ‘下膝’ 앞에 省略된 文章이 있다.

【考察】『靈樞·經脈』의 文章<sup>37)</sup>과 類似하다.

- (5) 靈樞經曰 足厥陰之脈者 肝脈也 起於足大指聚毛之際 上循足附上廉 足少陽之脈者 膽脈也 循足附上 出小指次指之端

【校勘】『靈樞·經脈』에는 ‘足厥陰之脈者 肝脈也’가 ‘肝足厥陰之脈’으로 되어 있으며, ‘足少陽之脈者 膽脈也’는 ‘膽足少陽之脈’으로 되어 있고 ‘循足附上’ 앞에 省略된 文章이 있다.

【考察】『靈樞·經脈』의 文章<sup>38)</sup>과 類似하다.

- (6) 靈樞經曰 衝脈者 與足少陰之絡 皆起於腎下 上行者過於胞中

【校勘】『靈樞』에 없다.

【考察】『靈樞』나 『素問』에서 찾을 수 없었다.

- (7) 靈樞經曰 足太陰之脈 起於大指之端 循指內側 及上內踝前廉 上臑內 循胫骨後 足少陰之脈 起於小指之下 斜趨足心 出於然骨之下 循內踝之後 以上臑內

【校勘】『靈樞·經脈』에는 ‘內側’ 다음에 ‘白肉際 過核骨後’가 있으며, ‘斜趨’가 ‘斜走’로 되어 있고, ‘循內踝之後’ 다음에 ‘別入跟中’이 있다.

【考察】『靈樞·經脈』의 文章<sup>39)</sup>과 類似하다.

- (8) 靈樞經曰 足少陰脈 循內踝之後 上臑內廉 足厥陰脈 循足附上廉 去內踝一寸 上踝八寸 交出太陰之後 上臑內

【校勘】『靈樞·經脈』에는 ‘循內踝之後’ 앞에 ‘起于小指之下 邪走足心 出于然骨之下’가 있으며, ‘循足附上廉’ 앞에 ‘起于大指叢毛之際’가 있다.

【考察】『靈樞·經脈』의 文章<sup>40)</sup>이다.

3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81.

3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36.

3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99.

3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9.

3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80.

3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83.

3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80.

4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81.

## 7. 『素問·靈蘭秘典論』

(1) 靈樞經曰 腎上連肺 故將兩藏 膀胱是孤府

【校勘】『靈樞·本輸』에는 ‘膀胱是孤府’는 ‘膀胱 是孤之府也’로 되어 있으며, 앞에 ‘三焦者 中瀆之府也 水道出焉 屬’이 있다.

【考察】『靈樞·本輸』의 文章41)이다.

## 8. 『素問·六節藏象論』

(1) 靈樞經曰 地有九州 人有九竅

【考察】『靈樞·邪客』의 文章42)이다.

(2) 靈樞經曰 一盛而躁在手少陽 二盛而躁在手太陽 三盛而躁在手陽明

【校勘】『靈樞·終始』에는 ‘在’ 앞에 ‘病’이 있다.

【考察】『靈樞·終始』의 文章43)과 類似하다.

(3) 靈樞經曰 一盛而躁在手厥陰 二盛而躁在手少陰 三盛而躁在手太陰

【校勘】『靈樞』에는 없다.

【考察】『素問·六節藏象論』의 文章과 類似한데, ‘一盛病在厥陰 二盛病在少陰 三盛病在太陰’<sup>44)</sup>으로 되어 있다.

(4) 靈樞經曰 陰陽俱盛 不得相營

【考察】『靈樞·脈度』의 文章45)이다.

## 9. 『素問·五藏生成』

(1) 靈樞經曰 身半以下 濕之中也

【校勘】『靈樞·邪氣藏府病形』에는 ‘以下’ 다음에 ‘者’가 있으며, ‘濕之中’은 ‘濕中之’로 되어 있다.

【考察】『靈樞·邪氣藏府病形』의 文章46)이다.

## 10. 『素問·移精變氣論』

(1) 靈樞經曰 風從東方來 名曰嬰兒風 其傷人也 外在筋細[細] 內舍於肝 風從東南來者 名曰弱風 其傷人也 外在於肌 內舍於胃 風從南方來 名曰大弱風 其傷人也 外在於脈 內舍於心 風從西南來 名曰謀風 其傷人也 外在於肉 內舍於脾 風從西方來 名曰剛風 其傷人也 外在於皮 內舍於肺 風從西北來 名曰折風 其傷人也 外在於手太陽之脈 內舍於小腸 風從北方來 名曰大剛風 其傷人也 外在於骨 內舍於腎 風從東北來 名曰凶風 其傷人也 外在於掖脇 內舍於大腸

【校勘】『靈樞·九宮八風』에는 ‘筋細’가 ‘筋紐’로 되어 있으며, ‘風從東南來’는 ‘風從東南方來’으로 되어 있다. ‘外在於肌’는 ‘外在於肌肉’으로 되어 있고, ‘外在於肉’은 ‘外在於肌’로 되어 있으며, ‘外在於皮’는 ‘外在於皮膚’로 되어 있고, ‘手太陽之脈’에는 ‘之’가 없다. 또한, ‘外在於骨’은 ‘外在於骨與肩背之筋筋’으로 되어 있고, ‘外在於掖脇’은 ‘外在於兩脅腋骨下及肢節’로 되어 있다.

【考察】『靈樞·九宮八風』의 文章47)으로 일부 文章을 省略하고 內外的 順序를 바꾸어 引用하였다.

## 11. 『素問·湯液醪醴論』

(1) 靈樞經曰 陽受氣於四末

【考察】『靈樞·終始』의 文章48)이다.

4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2.

4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98.

4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71.

4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37.

4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15.

4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36.

4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328.

4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71.

## 12. 『素問·脈要精微論』

(1) 靈樞經曰 足太陰之脈動 則病食則嘔 腹脹善噫也

【校勘】『靈樞·經脈』에는 ‘足太陰之脈 …… 是動則病舌本強 食則嘔 胃脘痛 腹脹 善噫’로 되어 있다.

【考察】『靈樞·經脈』의 文章<sup>49)</sup>으로, 일부를 省略하고 축약하여 引用하였다.

(2) 靈樞經曰 肝者筋之合也 筋者聚於陰器 而脈絡於舌本 故甚則舌卷卵上縮也

【校勘】『靈樞·經脈』에는 ‘故甚則舌卷卵上縮也’가 ‘故脈弗榮則筋急 筋急則引舌與卵 故脣青舌卷卵縮’으로 되어 있다.

【考察】『靈樞·經脈』의 文章<sup>50)</sup>과 類似한데, 문장을 줄이고 바꾸어 引用하였다.

(3) 靈樞經曰 風從東方來 名曰嬰兒風 其傷人也 外在於筋 紐 風從東南來 名曰弱風 其傷人也 外在於肌 風從西南來 名曰謀風 其傷人也 外在於肉 風從北方來 名曰大剛風 其傷人也 外在於骨

【考察】『靈樞·九宮八風』의 文章<sup>51)</sup>으로, 八風과 名稱만 引用하였다.

## 13. 『素問·平人氣象論』

(1) 靈樞經曰 胃爲水穀之海也

【考察】『靈樞·九宮八風』의 文章<sup>52)</sup>이다.

(2) 靈樞經曰 榮氣之道 內穀爲實 穀入於【脾】胃 氣傳與肺 流溢於中 而散於外 精專者 行於經隧

【校勘】『靈樞·營氣』에는 ‘實’이 ‘寶’로, ‘氣傳與肺’가 ‘乃傳之肺’로 되어 있으며 ‘精傳’ 앞에 ‘流溢於中 布散於外’가 더 있다.

【考察】『靈樞·營氣』의 文章<sup>53)</sup>으로 일부 글자를 바꾸고 문장을 생략하였다.

(3) 靈樞經曰 目黃者病在胸

【校勘】『靈樞·經脈』에는 ‘病在胸’이 ‘脇痛’으로 되어 있다.

【考察】『靈樞·經脈』의 文章<sup>54)</sup>으로 ‘脇痛’을 ‘病在胸’으로 바꾸었다.

(4) 靈樞經曰 少陰無輸 心不病乎 岐伯云 其外經病而藏不病 故獨取其經於掌後銳骨之端

【校勘】『靈樞·邪客』에는 ‘少陰無輸 心不病乎’가 ‘少陰獨無輸者 不病乎’로 되어 있다.

【考察】『靈樞·邪客』의 文章<sup>55)</sup>으로 ‘獨’을 생략하고, ‘心’을 넣어 引用하였다.

## 14. 『素問·玉機眞藏論』

(1) 靈樞經曰 肝氣實則怒

【校勘】『靈樞·本神』에는 ‘肝氣虛則恐 實則怒’로 되어 있다.

【考察】『靈樞·本神』의 文章<sup>56)</sup>이다.

## 15. 『素問·三部九候論』

(1) 靈樞經持鍼縱捨論問曰 少陰無輸 心不病乎 對曰 其外經病而藏不病 故獨取其經於掌後銳骨之端

4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80.

5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83.

5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328.

5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74.

5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13.

5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80.

5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99.

5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69.

【考察】

『靈樞·邪客』의 文章<sup>57)</sup>이다. 이 文章은 「平人氣象論」에서도 引用되었다. 하지만 특이점은 『靈樞·邪客』의 文章<sup>58)</sup>과 同一한데도 引用處를 『靈樞經·持鍼縱捨論』이라 한 것이다. 이는 現存 『靈樞』에는 「持鍼縱捨論」이 없기 때문에, 王氷이 引用한 『靈樞經』은 現存 『靈樞』와는 差異가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2) 靈樞經曰 經脈爲裏 支而橫者爲絡 絡之別者爲孫絡 由是孫絡 則經之別支而橫也

【校勘】『靈樞·脈度』에는 ‘孫絡’이 ‘孫’으로 되어 있다.

【考察】『靈樞·脈度』의 文章<sup>59)</sup>으로 ‘孫’을 ‘孫絡’으로 바꾸었다.

### 16. 『素問·經脈別論』

(1) 靈樞經曰 上焦如霧 中焦如漚

【考察】『靈樞·營衛生會』의 文章<sup>60)</sup>이다.

(2) 靈樞經曰 下焦如瀆

【考察】『靈樞·營衛生會』의 文章<sup>61)</sup>이다.

### 17. 『素問·藏氣法時論』

(1) 靈樞經曰 形寒寒飲則傷肺

【考察】『靈樞·邪氣藏府病形』의 文章<sup>62)</sup>이다.

(2) 靈樞經曰 肝氣實則怒

【校勘】『靈樞·本神』에는 ‘肝氣虛則恐 實則怒’로 되어 있다.

【考察】『靈樞·本神』의 文章<sup>63)</sup>이다.

(3) 靈樞經曰 中氣不足 則腹爲之善滿 腸爲之善鳴

【校勘】『靈樞』에 없다.

【考察】『靈樞』나 『素問』에서 찾을 수 없었다.

### 18. 『素問·宣明五氣』

(1) 靈樞經曰 足三焦者 太陽之別也 並太陽之正 入絡膀胱 約下焦 實則閉癰 虛則遺溺

【校勘】『靈樞·本輸』에는 ‘足三焦’의 ‘足’이 없다.

【考察】『靈樞·本輸』의 文章<sup>64)</sup>이다.

(2) 靈樞經曰 喜樂無極則傷魄

【考察】『靈樞·本神』의 文章<sup>65)</sup>이다.

(3) 靈樞經曰 悲哀動中則傷魂

【考察】『靈樞·本神』의 文章<sup>66)</sup>이다.

(4) 靈樞經曰 愁憂不解則傷意

【考察】『靈樞·本神』의 文章<sup>67)</sup>이다.

(5) 靈樞經曰 恐懼而不解則傷精

【考察】『靈樞·本神』의 文章<sup>68)</sup>이다.

5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99.

5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99.

5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15.

6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20.

6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20.

6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36.

6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69.

6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1.

6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68.

6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68.

6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68.

6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68.

## (6) 靈樞經曰 怵惕思慮則傷神

【考察】『靈樞·本神』의 文章<sup>69)</sup>이다.

## (7) 靈樞經曰 兩精相薄謂之神

【校勘】『靈樞·本神』에는 ‘薄’이 ‘搏’으로 되어 있다.

【考察】『靈樞·本神』의 文章<sup>70)</sup>으로 ‘搏’을 ‘薄’으로 바꾸었다.

## (8) 靈樞經曰 並精而出入者謂之魄

【考察】『靈樞·本神』의 文章<sup>71)</sup>이다.

## (9) 靈樞經曰 隨神而往來者謂之魂

【考察】『靈樞·本神』의 文章<sup>72)</sup>이다.

## (10) 靈樞經曰 心有所憶謂之意

【考察】『靈樞·本神』의 文章<sup>73)</sup>이다.

## (11) 靈樞經曰 意之所存謂之志

【考察】『靈樞·本神』의 文章<sup>74)</sup>이다.

## 19. 『素問·血氣形志』

## (1) 靈樞經及中誥咸云 肺俞在三椎之傍 心俞在五椎之傍 肝俞在九椎之傍 脾俞在十一椎之傍 腎俞在十四椎之傍

【校勘】『靈樞·背腧』에는 ‘傍’이 ‘間’으로 되어 있다.

【考察】『靈樞·背腧』의 文章<sup>75)</sup>으로 ‘間’을 ‘傍’으로 바꾸었다.

6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68.

7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68.

7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68.

7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68.

7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68.

7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68.

7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35.

## 20. 『素問·寶命全形論』

## (1) 靈樞經曰 天之在我者德 地之在我者氣 德流氣薄而生者也

【考察】『靈樞·本神』의 文章<sup>76)</sup>이다.

## 21. 『素問·八正神明論』

## (1) 靈樞經曰 水下一刻 人氣在太陽 水下二刻 人氣在少陽 水下三刻 人氣在陽明 水下四刻 人氣在陰分 水下不止 氣行亦爾 又曰 日行一舍 人氣行於身一周 與十分身之八 日行二舍 人氣行於身三周 與十分身之六 日行三舍 人氣行於身五周 與十分身之四 日行四舍 人氣行於身七周 與十分身之二 日行五舍 人氣行於身九周 然日行二十八舍 人氣亦行於身五十周 與十分身之四

【校勘】『靈樞·衛氣行』에는 ‘然日行二十八舍 人氣亦行於身五十周 與十分身之四’라는 文章은 없으나 ‘日行十四舍 人氣二十五周於身有奇分與十分身之二’라 하여 낮 동안의 人氣行을 설명하였으므로 王冰이 하루의 人氣行을 계산하여 補入한 것으로 보인다. ‘水下不止 氣行亦爾’도 王冰이 補入한 說明이다.

【考察】『靈樞·衛氣行』의 文章<sup>77)</sup>과 類似한데, 王冰의 補入이 있다.

## (2) 靈樞經曰 聖人避邪如避矢石

【校勘】『靈樞·九宮八風』에는 ‘聖人日避虛邪之道如避矢石’로 되어 있다.

【考察】『靈樞·九宮八風』의 文章<sup>78)</sup>으로 文章의 一部를 삭제하고 引用하였다.

7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68.

7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324.

7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324.

## 22. 『素問·離合眞邪論』

- (1) 靈樞經曰 水下一刻 人氣在太陽 水下二刻 人氣在少陽 水下三刻 人氣在陽明 水下四刻 人氣在陰分

【考察】『靈樞·衛氣行』의 文章<sup>79)</sup>이다.

- (2) 靈樞經曰 水下一刻 人氣在太陽 水下四刻 人氣在陰分也

【考察】『靈樞·衛氣行』의 文章<sup>80)</sup>이다.

## 23. 『素問·太陰陽明論』

- (1) 靈樞經曰 手之三陰 從臑走手 手之三陽 從手走頭 足之三陽 從頭走足 足之三陰 從足走腹

【考察】『靈樞·逆順肥瘦』의 文章<sup>81)</sup>이다.

## 24. 『素問·咳論』

- (1) 靈樞經曰 脈之所注爲俞 所入爲合

【校勘】『靈樞·九鍼十二原』에는 ‘凡二十七氣以上下…… 所注爲腧 …… 所入爲合’으로 되어 있다.

【考察】『靈樞·九鍼十二原』의 文章<sup>82)</sup>이다.

## 25. 『素問·舉痛論』

- (1) 靈樞經曰 盛怒而不止 傷志

【考察】『靈樞·本神』의 文章<sup>83)</sup>과 同一하다.

## 26. 『素問·腹中論』

- (1) 靈樞經曰 胃之原 名曰臍腧

【校勘】『靈樞·九鍼十二原』에는 ‘名曰臍腧’이 ‘出於臍腧’으로 되어 있다.

【考察】『靈樞·九鍼十二原』의 文章<sup>84)</sup>으로 ‘出於臍腧’을 ‘名曰臍腧’으로 바꾸었다.

## 27. 『素問·痺論』

- (1) 靈樞經曰 榮氣之道 內穀爲實

【校勘】『靈樞·營氣』에는 ‘實’이 ‘實’로 되어 있다.

【考察】『靈樞·營氣』의 文章<sup>85)</sup>이다.

## 28. 『素問·奇病論』

- (1) 靈樞經曰 迴腸當齊 右環迴周葉積而下廣腸 附脊以受迴腸左環葉積上下辟大尋

【校勘】『靈樞·腸胃』에는 ‘右環’이 ‘左環’으로 되어 있고, ‘尋’은 ‘寸’으로 되어 있다.

【考察】『靈樞·腸胃』의 文章<sup>86)</sup>과 類似하다.

- (2) 靈樞經曰 熱則筋緩 寒則筋急

【校勘】『靈樞·經筋』에는 ‘寒則反折筋急 熱則筋弛縱不收’로 되어 있다.

【考察】『靈樞·經筋』의 文章<sup>87)</sup>으로 意味에 맞추어 縮約하였다.

- (3) 靈樞經曰 甘多食之 令人悶

【校勘】『靈樞·五味論』에는 ‘甘走肉 多食之 令人悵心’으로 되어 있다.

【考察】『靈樞·五味論』의 文章<sup>88)</sup>으로 ‘甘走肉 多食之 令人悵心’을 ‘甘多食之 令人悶’으로 바꾸었다.

7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324.

8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324.

8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88.

8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2.

8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68.

8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3.

8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13.

8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70.

8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04.

8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70.

## 29. 『素問·刺志論』

(1) 靈樞經曰 榮氣之道 內穀爲實 穀入於胃 氣傳與肺 精專者 上行經隧

【校勘】『靈樞·營氣』에는 ‘實’이 ‘寶’로, ‘氣傳與肺’가 ‘乃傳之肺’로 되어 있으며 ‘精專’ 앞에 ‘流溢于中 布散于外’가 더 있다.

【考察】『靈樞·營氣』의 文章<sup>89)</sup>으로 일부 글자를 바꾸고 문장을 생략하였다.

## 30. 『素問·水熱穴論』

(1) 靈樞經曰 下焦溢爲水 此之謂也

【校勘】『靈樞』에 없다.

【考察】『素問·宣明五氣』의 文章<sup>90)</sup>이다.

## 31. 『素問·五運行大論』

(1) 靈樞經曰 因慮而處物 謂之智

【考察】『靈樞·本神』의 文章<sup>91)</sup>이다.

(2) 靈樞經曰 酸走筋 筋病無多食酸

【校勘】『靈樞』에 없다.

【考察】『素問·宣明五氣』의 文章<sup>92)</sup>이다.

(3) 靈樞經曰 恐懼而不解 則傷精

【考察】『靈樞·本神』의 文章<sup>93)</sup>이다.

## 32. 『素問·至眞要大論』

(1) 靈樞經曰 淡利竅也

【校勘】『靈樞』에 없다.

【考察】『靈樞』나 『素問』에서 찾을 수 없었다.

(2) 靈樞繫日月論曰 辰者三月 主左足之陽明 巳者四月 主右足之陽明 兩陽合於前 故曰陽明也

【考察】『靈樞·陰陽繫日月』의 文章<sup>94)</sup>이다.

(3) 靈樞繫日月論曰 戌者九月 主右足之厥陰 亥者十月 主左足之厥陰 兩陰交盡 故曰厥陰也

【考察】『靈樞·陰陽繫日月』의 文章<sup>95)</sup>이다.

(4) 靈樞繫日月論云 亥十月 左足之厥陰 戌九月 右足之厥陰 此兩陰交盡 故曰厥陰 辰三月 左足之陽明 巳四月 右足之陽明 此兩陽合於前 故曰陽明

【考察】『靈樞·陰陽繫日月』의 文章<sup>96)</sup>이다.

## 33. 『素問·疏五過論』

(1) 靈樞經曰 天之在我者德也

【考察】『靈樞·本神』의 文章<sup>97)</sup>이다.

## 34. 『素問·陰陽類論』

(1) 靈樞經曰 亥爲左足之厥陰 戌爲右足之厥陰 兩陰俱盡 故曰厥陰

【校勘】『靈樞·陰陽繫日月』에는 ‘戌者九月 主右足之厥陰 亥者十月 主左足之厥陰 此兩陰交盡 故曰厥陰’로 되어 있다.

8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13.

9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92.

9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68.

9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92.

9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68.

9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96.

9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96.

9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96.

9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68.

【考察】『靈樞·陰陽繫日月』의 文章<sup>98</sup>으로 일부 글자를 생략하였다.

(2) 靈樞經曰辰爲左足之陽明巳爲右足之陽明兩陽合明

【校勘】『靈樞·陰陽繫日月』에는 ‘辰者三月 主左足之陽明 巳者四月 主右足之陽明 此兩陽合于前 故曰陽明’로 되어 있다.

【考察】『靈樞·陰陽繫日月』의 文章<sup>99</sup>으로 일부 글자를 생략하였다.

### 35. 『素問·方盛衰論』

靈樞經曰 所謂交通者 並行一數也

【考察】 『靈樞·五十營』의 文章<sup>100</sup>이다.

## 考察

『素問』에 대한 王冰註 가운데 『靈樞經』을 인용한 부분은 총 94회<sup>101</sup>로, 引用文을 『靈樞』와 대조하여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1. 『靈樞』와 일치하는 경우

現存 『靈樞』와 일치하는 경우는 총 94회 중 59회<sup>102</sup>이다.

### 2. 『靈樞』나 『素問』에 모두 없는 경우

9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96.

9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96.

10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11.

101) 金중환은 論文(王冰에 對한 研究 -王冰의 素問에 對한 註釋 및 篇第의 改編을 中心으로-, 慶熙韓醫大論文集. 4(1). 1981. p.173)에서 96회라고 하였으나 여러번 검색한 결과 94회가 맞다.

102) 뒤에 나오는 기타의 2회를 포함하여 계산하였다.

現存 『靈樞』나 『素問』에 모두 없는 경우는 4-(1), 5-(2), 6-(6), 17-(3), 32-(1)에 해당되는데, 총 94회 중 5회이다. 이는 王冰이 『靈樞經』을 引用하였다고 밝힌 부분이기도 하지만 『靈樞』에는 없는 文章이며, 『素問』에도 없다.

### 3. 『靈樞』의 文章과 類似하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

現存 『靈樞』와 類似하지만 一致하지 않는 경우는 1-(2), 2-(2), 3-(5), 4-(7), 5-(4), 6-(1)·(3)·(4)·(5)·(7), 8-(2), 9-(1), 12-(2), 13-(2)·(3), 15-(2), 18-(1)·(7), 19-(1), 21-(1), 26-(1), 28-(1)·(2)·(3), 29-(1)에 해당되는데, 총 94회 중 25회이다. 이 외에도 助詞 등을 省略하거나 插入한 경우, 그리고 중간에 文章 일부를 省略한 경우도 있었으나 意味上 같은 文章으로 파악하여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 4. 『素問』의 文章인데 『靈樞』라 引用한 경우

現存 『靈樞』가 아닌 『素問』인 경우는 2-(1), 3-(1), 5-(5), 8-(3), 17-(3), 32-(1)에 해당되는데, 총 94회 중 5회이다.

### 5. 기타

6-(3)은 現存 『靈樞』와 『素問』을 같이 引用하였으며, 15-(1)은 『靈樞』의 文章과 同一하지만 引用處를 『靈樞經·持鍼縱捨論』이라 하였는데, 現存 『靈樞』에는 「持鍼縱捨論」이 없다. 이는 現存 『靈樞』에는 없는 편명이므로 王冰이 引用한 『靈樞經』은 現存 『靈樞』와는 差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王冰이 『素問』을 註解하면서 『靈樞經』을 引用한 文章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推論을 할 수 있다. 王冰이 引用할 때 『靈樞經』을 引用한다고 하였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誤謬가 있다는 推論이다.

첫째, 『靈樞』나 『素問』에 모두 없는 경우와 같이 『靈樞經』을 引用하였다고 하였으나, 전혀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素問』의 文章인데

『靈樞』라 引用한 경우처럼 『靈樞』가 아닌 『素問』을 引用하면서도 『靈樞經』이라고 잘 못 引用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靈樞』의 文章과 類似하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처럼 『靈樞經』을 引用하면서 일부 內容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王氷이 『靈樞經』을 引用하면서 誤謬가 없었을 것이라는 假定下에 새로운 推論도 可能하다. 王氷이 言及한 『靈樞經』이 現存 『靈樞』와 同一하지 않다는 推論이다. 한편으로는 現存 『靈樞』와 王氷이 言及한 『靈樞經』이 同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靈樞』나 『素問』에 모두 없는 경우처럼 現存 『靈樞』에서는 內容을 찾아볼 수 없으며, 『靈樞』의 文章과 類似하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처럼 現存 『靈樞』와 類似할 뿐 같은 서적이라 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靈樞經·持鍼縱捨論』의 경우는 現存 『靈樞』와 內容으로는 완전 一致하지만, 言及되어 있는 篇名은 現存 『靈樞』에는 存在하지 않는 것이다.

즉, 王氷의 『靈樞經』 引用文은 王氷의 誤謬였을 可能性과 王氷이 引用한 『靈樞』와 現存 『靈樞』가 同一하지 않았다는 可能性이 있다.

## 結論

『素問』에 대한 王氷의 註解 중 『靈樞經』을 引用한 文章을 考察한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王氷이 言及한 『靈樞經』이 『靈樞』와 일치하는 경우는 94회 중 59회이다.
2. 『靈樞』나 『素問』에 모두 없는 경우는 94회 중 5회이다.
3. 『靈樞』의 文章과 類似하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94회 중 25회이다.
4. 『素問』의 文章인데 『靈樞經』이라고 引用한 경우는 94회 중 5회이다.
5. 現存 『靈樞』의 文章이지만 다른 篇명을 제시하고 있는 곳도 있다.

王氷의 『靈樞經』 引用文은 現存하는 『靈樞』와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素問』 王氷註에 대한 研究를 할 때 이 점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1. 金基郁, 朴炫局. 『黃帝內經素問·七篇大論』 王氷 主本을 통한 運氣學說 關한 研究. 東國韓醫大研究所論文集. 4. 1995.
2. 金基郁, 朴炫局. 楊上善과 왕빙 注釋의 比較論的인 研究(I).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4(1). 2001.
3. 金基郁, 朴炫局. 楊上善과 왕빙 注釋을 통한 醫學理論의 比較論的인 研究 (II).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4(2). 2001.
4. 金南一. 王氷의 생애와 그 의학사상의 특징. 韓國醫史學會誌. 15(1). 2002.
5. 이용범. 『靈樞』의 書誌學的 考察.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2(2). 1999.
6. 宋志靑 琴垌樹, 沈賢娥, 嚴東明. 『素問』 王氷註中 『鍼經』 引用에 관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4(2). 2011.
7. 金重漢, 洪元植. 王氷에 對한 研究 -王氷의 素問에 對한 註釋 및 篇第의 改編을 中心으로-. 慶熙韓醫大論文集. 4(1). 1981.
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10. 王氷 編註. 新編 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